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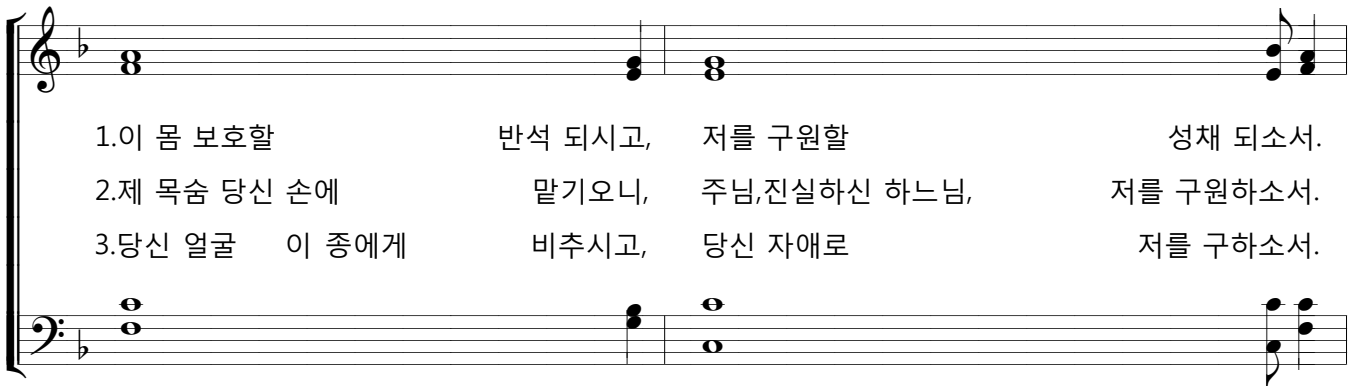
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

2022. 7.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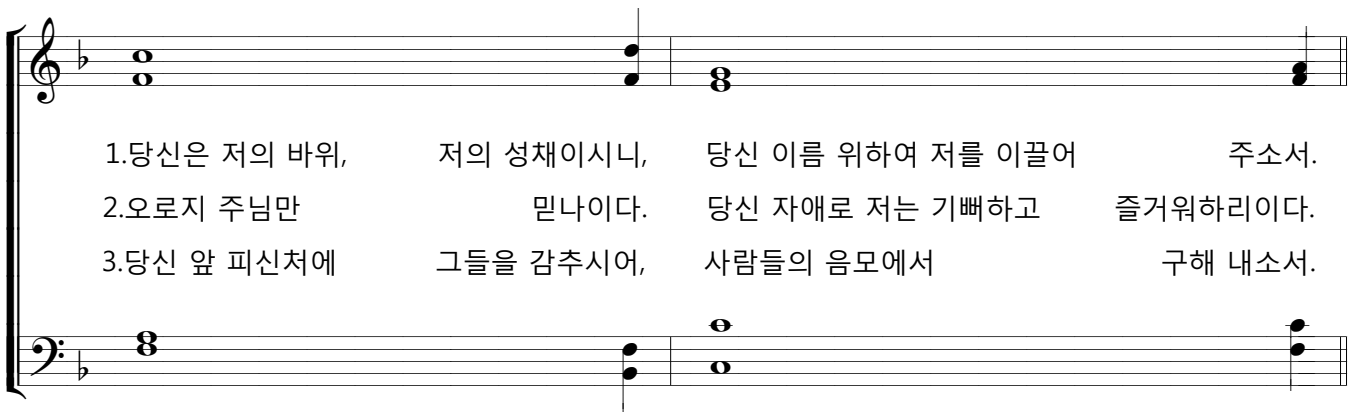
시편 31 (30), 3ㄷㄹ-4. 6과 7ㄴ과 8ㄱ. 17과 21ㄱㄴ (◎ 6ㄱ참조)



후렴. 주님,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.



1.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,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.
2.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, 주님,진실하신 하느님, 저를 구원하소서.
3.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,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.



1.당신은 저의 바위, 저의 성채이시니,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.
2.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.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.
3.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,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.